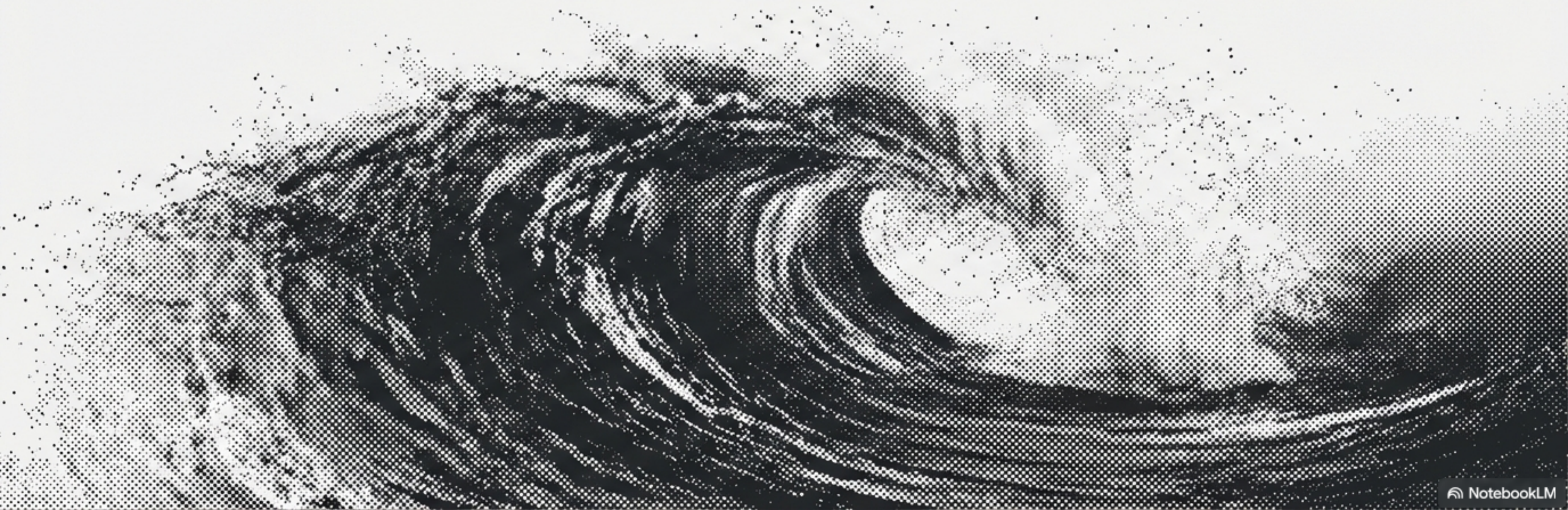


어디까지 의심해보셨어요?

시장을 지배하는 다섯 가지 질문과 그 이면의 진실



지금 시장이 던지는 5가지 위험한 질문

- 01 빅테크 Capex 폭증, 정말 돈이 되는가?
- 02 케빈 워시 체제, 월가 붕괴의 서막인가?
- 03 대규모 해고, 경기침체의 신호인가?
- 04 미국 시스템은 내부로부터 붕괴하고 있는가?
- 05 우리는 지금 버블의 끝자락에 있는가?

Pillar 1: Capex 폭증에 대한 시장의 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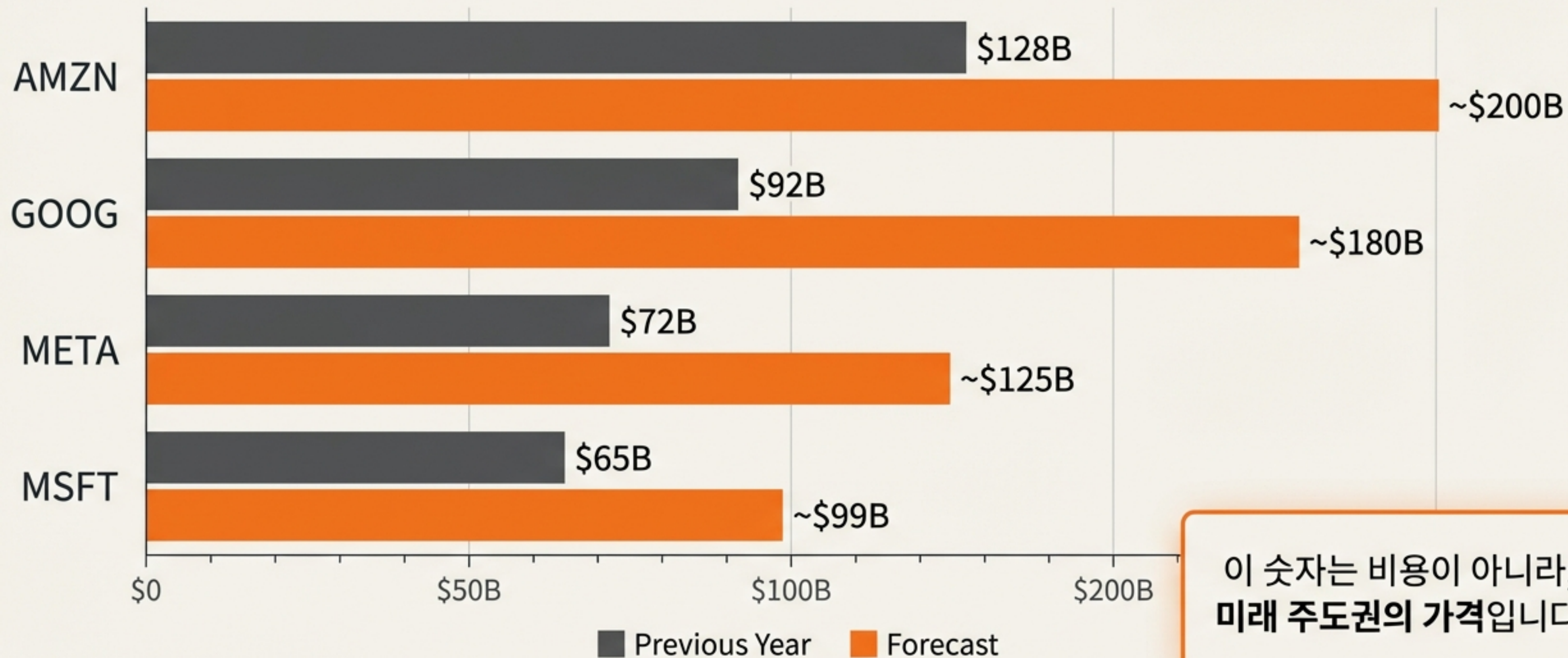
“주주에게 돌아올 몫은
사라지는가?”

시장은 빅테크의 지출이 단순히
비용을 늘리고, 수익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투자가
성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가 주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본질은 단순 지출이 아닌 '가치 이동'

AI 완성 이후의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 투자' 경쟁.



이 숫자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 주도권의 가격입니다.

Pillar 2: 새로운 연준 의장과 월가 붕괴설

시장 우려 (Market Fear)

워시 지명 시점과 맞물린 금, 은, 비트코인의 하락. 시장은 그가 “메인스트리트”를 위해 금융시장을 희생시킬 것이라 우려합니다.



케빈 워시 (Kevin Warsh)



연준은 AI 혁신의 파트너가 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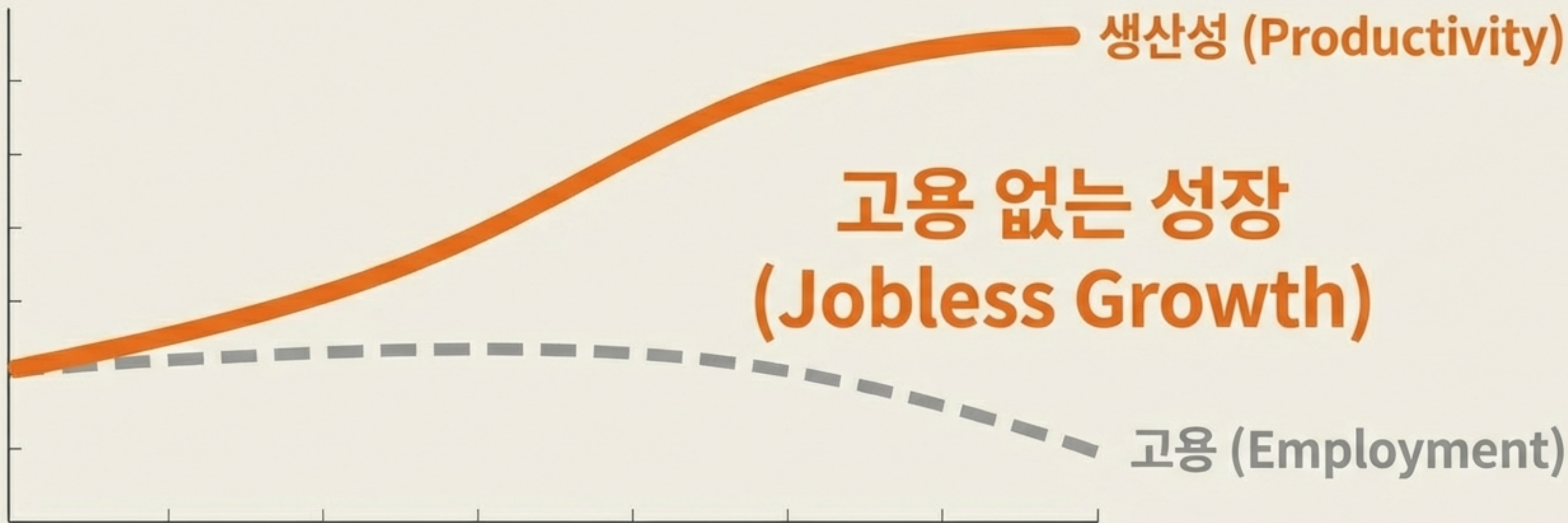
케빈 워시는
‘AI 기반 생산성
향상’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가진
인물입니다.



AI
Productivity

연준의 정책은
AI 혁신의 수혜를
전제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월가의 붕괴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궤도를
의미합니다.

Pillar 3: 경기침체인가, 구조적 변화인가?



우리는 과거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 과도기에 진입했습니다. 고용 둔화와 해고는 불황의 신호가 아니라, AI로 인한 생산성 혁명의 부작용이자 증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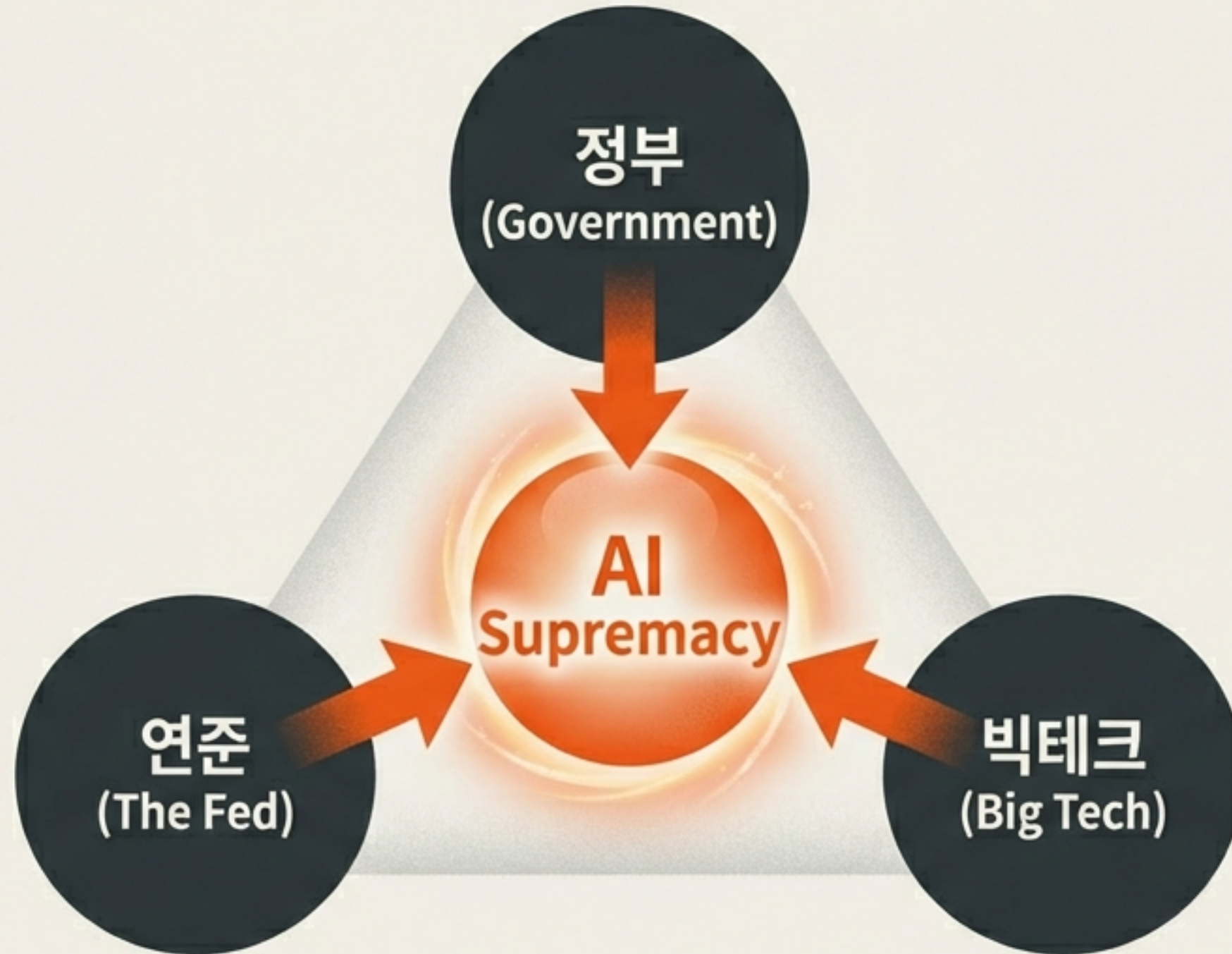
Pillar 4: 미국 시스템 위기론의 허와 실

정치적 분열,
신구 권력의 충돌,
레이 달리오식
내부 붕괴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금융시장 급락
속에서도 미국 국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시장은 아직 '체제 붕괴'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건재합니다.

거대한 축의 정렬 (Alignment of the Great Axes)



AI 혁명은 이미 진행 중이며, 미국 정부와 연준은 이를 돕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향후 1~2년: 우리가 마주할 '뉴 노멀'

AI로 가는 길에는 항상 이 세 가지가 동반될 것입니다.

1. 불확실성 (Uncertainty)



2. 과잉투자 (Overinvestment)



3. 버블 논쟁 (Bubble Debates)



조정이 올 때마다 같은 의심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소음(Noise)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프레임 전략

이 가정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
장기 프레임을 유지하십시오.

가격의 변동성이 아닌, 변화의 방향성에 주목하십시오.

